

하이닉스, 영업적자 36% 감소

1/4분기 마이너스 5150억원 ... D램 2%에 낸드플래시 4% 줄어

하이닉스가 1/4분기에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.

하이닉스반도체는 2009년 1/4분기 D램 및 낸드플래시 판매량 감소 등으로 2008년 4/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13% 감소한 1조31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.

하지만,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등의 결과로 영업손실은 전기대비 약 36% 감소한 5150억원을 기록해 다소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.

D램 출하량이 2% 감소했고 판매가격도 7% 하락했으며, 낸드플래시는 출하량이 4% 감소했으나 판매가격은 10% 상승했기 때문이다.

1분기 순손실은 외환차손 및 환산손실 증가, 우발채무 관련 비용을 포함한 비현금성 비용이 반영돼 1조1780억원을 기록했다.

하이닉스는 “차세대 기술개발 및 비용절감을 통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모바일, 그래픽, 서버용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50% 이상으로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하반기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또 D램은 2009년 하반기 44나노 DDR3을 본격 양산화함으로써 후발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, 낸드플래시도 5월부터 41나노 제품을 양산하는 한편, 32나노 제품 개발을 앞당겨 선두기업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24>